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내가 김태리 나이에는

2022년 나의 봄은 지난달 종영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와 함께 시작되었다. 드라마는 마흔 넘은 내가 보기에 지나치게 청량하고 발랄한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담은 로맨스였지만 그래도 나의 감수성이 아주 메마르진 않았는지 주인공과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설레는 봄을 맞이했다.

극중에서 여자 주인공 나희도를 연기한 배우 김태리는 90년생으로 무려 서른두 살의 나이로 고등학생을 연기했다. 하지만 드라마 후반부에 김태리가 성인이 된 나희도를 연기할 때 더 어색해 보였을 정도로 그녀는 고등학생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생기 넘치고 발랄한 그녀를 보면서 나의 서른둘을 떠올려 보았다.

나는 그때도 애가 셋이었다. 화들짝 놀라 "어머어머 난 김태리 나이에 애가 셋이었어" 했더니 남편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이고 안유진 참 열심히 살았네!" 하는데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다. "자기도 마찬가지네!" 라고 말한 후 눈길을 피하고 잠시 과거로 돌아갔다.

그래, 그때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다. 이십 대 후반 첫 아이가 태어나고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홀엄마와 밤새 우는 갓난아이와 넷이 함께 사는 일이 참 고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집을 사게 된다. 집을 사기 전에 성당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과 은행장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왜 지금 집을 살려고 하냐며 만류했다. 지금 우리 형편에 은행 융자를 얻어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아직 젊으니 몇 년 더 렌트를 하다가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것이다. 그들은 좋은 분들이었고 그때 내게 했던 말은 백 번 옳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눈에 뭐가 씌었는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무시한 채 우리는 집 구매를 강행했다. 그때 남편은 대학원생이었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월급쟁이에다가 수중에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었다. 순식간에 무엇에 홀린 듯 최소한의 다운페이만 하고 어찌어찌 집을 사긴 했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였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 융자를 받았고 매달 그 돈을 갚느라 빚쟁이에게 쫓기는 압박을 난생처음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은행에서 돈이 빠지는 날이 다가오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졌고 그러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낮없이 일했고 부업도 했고 수첩에는 어떻게 돈을 만들어 메꿀지 계획들이 빼곡했다.

어쩌다가 그 시절 사진을 찾아보면 올망졸망 귀여운 아이들 뒤로 언제나 피곤에 찌든 내가 보인다. 대부분의 사진 속에 나는 아이를 안고 있거나 잡으러 가고 있지 않으면 넋이 나가 있거나 초췌하기 그지없다. 그때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으며 버티고 지켜낸 그 집에서 우리는 아이를 셋이나 더 낳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살았다. 그리고 지금 그 집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움이 가득한 돌아가고픈 고향집처럼 남아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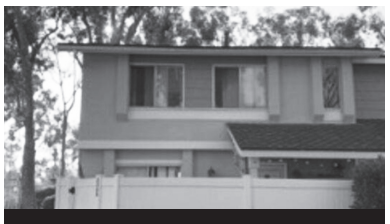
서른두 살, 김태리 나이에 나는 생기발랄하지도 눈부시지도 못했다. 초췌한 얼굴로 하루하루 정신없이 아이들 육아에 매진하고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버티느라 서른두 살도 참 좋은 때라는 것을 미처 깨달을 틈도 없었던 것 같다. 벌써 십 년이 훌쩍 넘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서른두 살에 우리에게 돌아가 수고했다고, 잘 버텨서 장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때 우리의 결정들이 모두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린 선택과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만은 인정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풀러톤 단독 주택 $ 675천
방 4 화 2 1407 sqft
1974년생, 게이트 단지, 일층에 방과 목욕탕,
낮은 관리비, 인기많은 지역, 조용한 단지,
오픈 구조


풀러톤 타운 하우스 $ 61만
마켓에 오래 있지 않을 매물 서두르세요
방 3, 화 1.5, 약 1200sqft 한인분들 선호 하는
좋은 동네, 초중고 학군 무지 좋은 동네 첫집으로
완성 맞춤, 렌트도 아주 잘나가는 단지, 쾌적한
환경. 거라지 두개, 수영장, 스파

풀러톤 단층 하우스 $ 84만
방 3 화 2 약 1300sqft
대지 6541 sqft
학군좋은 동네, 최신 리모델한집,
교통 편한곳,오픈 구조

풀러톤 타운홈 $ 595천
방 2 화 2 약 1200sqft
일층, 거라지 두개, 밝고 환한 집,
싱글홈 같은 느낌의 타운홈 놓치지 마세요

풀러톤 타운홈 $ 59만
방 3 화 2.5 약 1600 sqft
브레아몰 가깝고, CSUF 가까운 렌트용으로 아주
좋은 매물, 첫집 장만으로도 아주 최적, 수영장,
많은 분들 선호 하는 지역

풀러톤 타운 홈 $ 75만
방 2 화 2.5 1400 SQFT
거라지 두개 초중고 도보 거리, 아메리지 하이츠
도보거리, 코너 유닛 밝은 집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사장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Residential * Commercial * Investments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Get it done right with Leah Ivy Chang"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